



### 한선교 KBL 총재 '연임' 의지 오늘 기자회견 열어 입장표명

최근 남자프로농구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새 커미셔너 선출 문제다. KBL(한국농구연맹) 한선교 총재(사진)의 연임이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든 커미셔너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모든 시선이 새 총재 선출로 모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미 "(10개 구단 중) 7개 구단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추대가 불발되고 경선으로 가게 된다면, 내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던 한 총재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한 총재는 14일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말하겠다"며 "각 구단 단장들이 (자신의 연임 추대를 포함한) 새 총재 선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농구계에선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총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두 번째 총재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L 정관상 새 총재는 10개 구단 구단주(또는 위임장)를 받은 단장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선출된다. 즉, 10개 구단 중 7개 구단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KBL 정관상 총재 선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각 구단 단장들로 이뤄진 이사회가 추대를, 경선인든 상황에 따른 방법을 적용해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 FA시장 '사인&트레이드' 뜬다

프로농구 구단들, FA 영입 팬 보상비용 부담  
출혈 최소화 '재계약 후 트레이드' 트렌드로

올해 남자프로농구에선 문태종(LG), 김태술, 양희종(이상 KGC), 함지훈(모비스) 등 대어급 선수들이 대거 자유계약선수(FA)가 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소속구단과의 협상기간 종료(15일)에 맞춰 이들의 행선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희종은 13일 KGC와 재계약(계약기간 5년·보수총액 6억)했으며 함지훈, 정영삼(전차랜드)도 사실상 잔류를 굳혔다. 재계약에 성공한 각 구단은 안도의 한숨을, 영입을 노렸던 타 구단들은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문태종, 김태술 등은 여전히 협상 중이다.

KBL(한국농구연맹)은 지난해 FA 제도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타 구단 FA 영입에는 제약이 많다. 만 35세 미만의 보수총액 30억 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해당선수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50%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출혈이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출혈의 최소화를 위한 FA시장의 또 다른 카드가 바로 '사인&트레이드'다.

원 소속구단이 영입 구단과의 트레이드에 우선 합의한 뒤, 해당선수와 재계약하고 나서 트레이드를 단행하는 형식이다. KBL은 FA 사전접촉을 금하고 있지만, 재계약 후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 FA 규정상으로는 이를 제할 길이 없다. 영입 구단은 보상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원 소속구단도 협상을 통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최근 FA 시장의 트렌드가 됐다.

원 소속구단과의 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각 구단은 원하는 FA 영입을 위해 물밑에서 사인&트레이드 작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결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KBL은 FA 기간 동안 트레이드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FA 이적 향방은 트레이드 가능일인 5월 29일이 돼서야 확인할 수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 대한체육회, 내일 생애주기별 국가대표 지원 토론회

대한체육회(회장 김성행)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국가대표 선발부터 은퇴 후까지 생애주기별 전 과정에 걸친 국가대표선수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양대 임대석 교수가 진행을 맡고,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미숙 연구원이 발제를 담당한다. 한양대 박재우 교수, 한국올림픽성화회 최광용 회장, KBS 박현철 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 인천AG조직위, 기획사무차장에 이일희 씨 등 인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사무차장 이일희 ▲경기운영본부장 유재한 ▲경기운영2부장 조흥근

편집 | 고창일 기자 coo@donga.com 트위터 @mkh2357



이용대(가운데)와 김기정(오른쪽)이 14일 태릉선수촌 오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배드민턴연맹이 내렸던 자격정지 논란에 따른 마음고생과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자신했다. 태릉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n

## 이용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뚝다"

### 인천AG 금메달 위해 태릉서 구슬땀

"도핑 문제는 선수인 나도 못 챙긴 잘못 협회와 소통 잘 되면 재발하지 않을 것" 기자회견서 AG·세계선수권 제패 각오

"그동안 꾸준히 개인훈련을 해왔다. 다시 시작한다. 인천아시안게임과 세계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4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이용대(26·삼성전기)의 표정은 담담했다. 도핑 절차 위반으로 선수자격이 정지됐다가 징계가 취소되면서 다시 코트르 돌아오는 일을 겪었지만, 과거는 이미 훌훌 털어버린 모습이었다. 대신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부단히 뛰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용대는 14일 서울 태릉선수촌 오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말문을 열고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수촌에 돌아왔다"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제 모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은 지난



이용대(오른쪽)와 김기정(왼쪽)이 14일 태릉선수촌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태릉 | 김종원 기자



1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검사 소제지 보고에 3차례 응하지 않아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이 도핑테스트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협회의 행정상 문제"라며 스포

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BWF 도핑청문위원단은 재심을 열어 지난달 14일 두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항소도 없

다. WADA는 BWF의 결정을 21일 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이날 "BWF와 CAS에 어제(13일)까지 확인한 결과 WADA가 항소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을 몰아냈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는 얘기다. 이로써 두 선수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인도 뉴델리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는 "이번 도핑 문제는 협회뿐 아니라 선수인 나도 못 챙긴 부분"이라며 "앞으로 협회와 소통이 잘 된다면 배드민턴 선수들뿐 아니라 국가대표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는 "처음 결과를 받았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1년 뒤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훈련을 쉬진 않았다"며 "그동안 (김)기정과 집 근처에서 체력훈련을 꾸준히 해왔고, 3주 전부터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득춘 대표팀 감독도 "이용대와 김기정은 3개월 동안 개인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경기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릉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 사격연맹-대한체육회 '변경수 컴백'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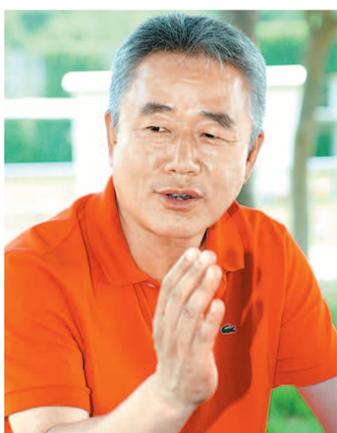
사격연맹 "한국사격 세계 최강 이끌어" 대표팀 총감독 추대 대한체육회 "도핑 징계 끝나자마자 복귀 안될 말" 승인 거부

대표팀 총감독 선임과 총의훈련을 두고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격대표팀 지도자 전원(12명)은 "총감독과 총의훈련의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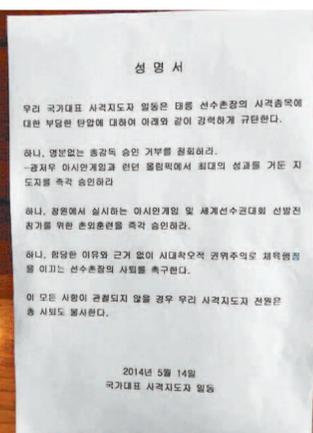
사격연맹은 4월 23일 충북 청원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변경수 전 대표팀 감독을 만장일치로 대표팀 총감독으로 추대했다. 변 전 감독은 2003년 국가대표 사령탑에 오른 뒤 10년간 지휘봉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 선수로 출전했다가 도핑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자격정지 6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KADA는 변 감독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변 감독의 고혈압 치료약에 금지약물인 이노제 성분이 포함된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할 때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변 감독이 고의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 ●사격연맹과 대한체육회의 갈등

6개월의 징계는 7일로 마무리됐다. 사격연맹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의대로 대한체육회에 대표팀 총감독 승인 건을 올렸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변 감독은 2010광저우아시안



사격대표팀 변경수 총감독(왼쪽 사진)의 선임과 총의훈련 승인을 놓고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사격대표팀 코치 12명은 14일 성명서(오른쪽 사진)까지 내놓으며 대한체육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게임(금13·은8·동7)과 2012런던올림픽(금3·은2)에서 한국사격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지도자다. 실수는 있었지만 최적의 감독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즉각적인 승인을 보류하고, 14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20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사격연맹에서 지도자 선임건을 재논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변 감독의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최종삼(태릉선수촌장) 경기력향상위원장은 "도핑 검사에 적발된 지도자가 징계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대표팀 감독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에 참석한 사격연맹 임재수 부회장은 "이미 징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를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음 주 회장 보고를 통해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격대표팀 지도자 '전원 총사퇴도 불사'

대한체육회와 사격연맹은 총의훈련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격연맹은 인천선수촌을 벗어나 5~6월 창원으로 총의훈련을 갈 계획이었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최종삼 총장은 "선수촌 시설이 좋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주일간만 총의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격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이 코앞인데 지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훈련을 규제하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격국가대표 코치 12명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분 없는 총감독 승인 거부 철회,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선발전 참가를 위한 창원 총의훈련 즉각 승인, 권위주의로 체육행정 이끄는 선수촌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3가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격대표팀 지도자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